

자료제공 : 2022. 12. 13.(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2133-8515
안전지원팀장	권우정	2133-8517
담당자	주민희	2133-851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서울전역 한파주의보 발효... 서울시, 한파 대비 총력

- 12월 13일(화) 21시 한파주의보 발령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 노숙인, 쪽방주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순찰강화 조치 시행
- 서울시 사회관계망(SNS), 긴급재난문자 등 활용해 한파 시민 행동요령 신속 전파

□ 기상청이 12월 13일 오후 9시 서울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2021년의 경우 한파특보는 총 14일(한파주의보 10일, 한파경보 4일) 발효된 바 있다.

□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 복구반 등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사회관계망(SNS)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또한 이번 한파는 눈이 함께 동반된 만큼 결빙 등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 특히, 모바일 ‘서울안전앱’을 통해 한파를 비롯한 각종 재난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안전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와 미수신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밀반찬 배달 추가와 거리노숙인 상담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한파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여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체감온도가 -15도로 급격히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된 만큼 시민여러분들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보온유지 등 건강관리와 수도동파 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